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 기재된 大便에 대한 고찰

조성규 · 배효상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The Study on the Description of Feces Mentioned in
『Dongyisebowonsasangchobongwon』, 『Dongyisebowongabobon』,
『Dongyisebowonsinchukbon』

Cho Sung-Kyoo, Bae Hyo-Sa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arch the descriptions of feces in the text of Lee, Je-Ma for the physiological feces and pathological feces in constitutional medicine.

2. Methods

We searched the descriptions of feces mentioned in the text of 『Dongyisebowonsasangchobongwon』, 『Dongyisebowongabobon』, and 『Dongyisebowonsinchukbon』 and classified the feces into physiological feces and pathological feces by the solidity, color, impurities of feces, and the frequency of defecation.

3. Results

For Soyangin and Taeyangin, there are formal descriptions of feces related to the constipation in 『Dongyisebowon sasang chobongwon』, but for Soeumin and Taeumin, there is not formal description of feces related to the constipation in 『Dongyisebowonsasangchobongwon』 and for all 4 Type Constitution, there are various formal descriptions of feces related to the diarrhea in 『Dongyisebowonsasangchobongwon』.

For all 4 Type Constitution, there are various formal descriptions of feces related to the constipation in 『Dongyisebowongabobon』, except Taeumin. and for all 4 Type Constitution, there are various formal descriptions of feces related to the diarrhea in 『Dongyisebowongabobon』. For Soeumin, especially there are the formal descriptions of color and impurities of feces.

For all 4 Type Constitution, there are various formal descriptions of feces related to the constipation and the diarrhea in 『Dongyisebowonsinchukbon』. For Soeumin, especially there are formal descriptions of color and impurities of feces.

4. Conclusions

The diarrhea in Soeumin is serious illness rather than the constipation, and the constipation in Soyangin is serious illness rather than diarrhea. Especially In Yin Exhausted Syndrome in Soyangin, the diarrhea is the important standard of diagnosis in Soyangin's constitutional symptom. The description of feces in Taeumin is not systematic, compared with Soeumin's and Soyangin's. The description of feces in Taeyangin is not yet scientifically established compared with Soeumin's, Soyangin's, Taeumin's.

Key Words: Feces, Ordinary Symptom, 『Dongyisebowonsasangchobongwon』, 『Dongyisebowongabobon』, 『Dongyisebowonsinchukbon』

I. 緒 論

四象人の 평소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
 是 四象醫學 病證論의 기초가 되는 관점으로서 太少陰陽人の 生理證·病證과 體質病理에 기초하여 질병의 경향성과 계통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증상군인 素證, 혹은 素病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¹.

이러한 素證의 하나인 大便의 異常狀態를 서양의학에서는 便秘와 泄瀉로 나누고, 便秘의 경우 로마기준(Rome II Criteria)¹⁾으로 분류하고², 泄瀉의 경우 排便回數 하루 4회 이상, 대변양이 하루 250g 이상의 묽은 변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3주 이상 지속되는 설사를 만성설사, 그 이하를 급성 설사로 정의한다³.

體質別 大便과 관련된 기존 논문으로 이⁴ 등의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의 病證論을 중심으로 한 연구, 윤¹의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東醫壽世保元』 등을 중심으로 大便을 비롯한 素證에 대한 연구, 김⁵ 등의 『東醫世保元 四象草本卷』과 『東武遺積』를 중심으로 大便을 비롯한 素證에 대한 연구 등이 있고, 최⁶ 등, 김⁷ 등, 박⁸ 등이 설문지를 이용한 素證 연구를 통하여 體質別 大便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 임상논문이 있으며, 이⁹ 등이 자율신경계를 중심으로 大便을 살펴본 논문이 있다.

이에 저자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東武 李濟馬의 著書로 알려진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 나타난 大便과 관련된 표현을 硬度, 色, 雜穢物 등과 같은 형태적 표현을 중심으로 大便回數, 또는 幾日에 대한 표현을 함께 살펴보고,

1) 기능성 변비의 진단 기준(Rome II Criteria) : 지난 12개월 중 12주 이상(연속되지 않아도 됨) 다음 중 2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단, 무른 변이 없고, 과민성장 증후군의 진단기준에 부적합하여야 함) ① 배변시 과도한 힘주기가 전체 배변 횟수의 1/4을 초과 ② 덩어리되거나 단단한 대변이 전체 배변 횟수의 1/4을 초과 ③ 배변후 잔변감이 전체 배변 횟수의 1/4을 초과 ④ 배변시 항문이 막혀있는 느낌이 전체 배변 횟수의 1/4을 초과 ⑤ 배변을 돕기 위한 수조작이 필요한 경우가 전체 배변 횟수의 1/4을 초과(대변을 손가락으로 파내든지, 골반저를 지지하는 조작 등) ⑥ 주당 3회 미만의 배변

이를 體質生理的 大便과 體質病理的 大便의 範疇에서 板本別로 비교, 연구하여 약간의 결과를 얻었기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研究目的

體質病證을 파악하는 지표의 하나인 大便을 통하여 各 體質別로 體質生理的 大便과 體質病理的 大便에 대하여 살펴본다.

2. 研究方法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등에 나타난 大便과 관련된 표현을 살펴보고, 아래 大便의 분류기준을 통하여 體質生理的 大便과 體質病理的 大便의 範疇로 나누고, 板本別로 비교, 연구하였다.

1) 研究資料

- (1)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집문당에서 2005년 발간한 朴性植 譯解의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이하 『草本卷』으로 간칭)의 條文을 기준으로 하였다.
- (2)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四象體質醫學會에서 2001년 발간한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復元本』(이하 『甲午本』으로 간칭)의 條文을 기준으로 하였다.
- (3)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전국한외과대학 사상 의학교실에서 2005년 발간한 『改正增補 四象醫學』(이하 『辛丑本』으로 간칭)의 條文을 기준으로 하였다.

2) 大便의 형태적 표현

各 體質別로 大便에 대한 형태적 표현을 硬度, 色, 雜穢物 등으로 분류하고, 板本別로 Table 1, 2, 3으로 정리하였다.

- (1) 硬度 : 大便의 굳기에 따라 大便秘와 泄瀉로 大分하고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Table 1. The Formal Description of Feces in 『Dongyisebowonsasangchobongwon』

草本卷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硬度	大便秘	-	大便不通	-	大便不通
	泄瀉	大小便滑利 下利後重 冷泄 暴泄 泄瀉	大便溢滑 大小便滑利 下利後重 滯痢病 久泄 泄瀉	大小便滑利 下利後重	大小便滑利 下利後重者 利泄
色		-	-	-	-
雜穢物		-	-	-	-

Table 2. The Formal Description of Feces in 『Dongyisebowongabobon』

甲午本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硬度	大便秘	大便秘, 便閉, 大便難, 大便硬, 大便雖革更	大便仍閉, 大便秘閉	-	大便如羊屎
	泄瀉	泄瀉, 下利	泄瀉, 滑泄, 屢泄, 滑便, 大便滑, 大便通滑, 滑利, 快泄	泄瀉, 痢疾, 自利	泄瀉痢疾
色		下利黃水, 下利青水, 下利不青, 下利青	-	-	-
雜穢物		下利青穀, 下利清穀, 雜穢物, 清穀麥粒	-	-	-

Table 3. The Formal Description of Feces in 『Dongyisebowonsinchukbon』

辛丑本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硬度	大便秘	大便秘, 大便雖硬, 便秘, 大便燥結, 大便秘結	大便反秘, 大便秘閉, 大便不通, 大便燥, 大便秘, 便秘, 大便秘燥	大便不通, 大便秘	大便秘少, 羊屎
	泄瀉	泄瀉, 下利, 或時溇	泄瀉, 滑利, 滑泄, 滑便, 泄利, 泄下, 大便滑	或泄 泄瀉, 自利	泄瀉痢疾
色		下利青水, 青水變爲黑水, 黑水泄瀉, 下利黃水, 大便黑	-	-	-
雜穢物		下利清穀, 清水中雜穢物, 非清水而又必雜穢物, 清穀麥粒 皆如黃豆大	-	-	-

· 大便秘 : 大便의 상태가 燥結하여 排便困難한 상태인 大便秘, 大便秘燥, 大便燥澁, 大便燥結, 大便硬, 大便難, 羊屎, 便秘 등의 표현과 大便不通을 大便秘로 통칭하고, 該當 原

文의 표현별로 살펴보았다.

· 泄瀉 : 大便의 상태가 糞便稀薄과 完谷不化하여 水樣便을 보이는 泄瀉, 泄下, 滑利, 滑泄, 下利, 自利, 冷泄, 利泄, 痢疾, 痢病, 滑便,

溇 등과 같은 표현을泄瀉로 통칭하고, 該當原文의 표현별로 살펴보았다.

- (2) 色: 大便의 색과 관련된 표현을 살펴보았다.
- (3) 雜穢物: 大便의 雜穢物과 관련된 표현을 살펴보았다.

3) 體質生理的 大便

硬度나 大便回數에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體質生理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大便과 관련된 표현을 體質生理的 大便으로 보고, 體質生理的 大便과 관련된 형태적 표현과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을 各 體質別로 살펴보았다.

4) 體質病理的 大便

體質의 脆弱點이 나타나는 상태에서의 大便을 體質病理的 大便으로 보고 體質病理的 大便과 관련된 형태적 표현과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을 各 體質別로 살펴보았다.

3. 大便과 관련된 형태적 표현

1) 『草本卷』에 나타난 大便과 관련된 형태적 표현
『草本卷』에서 大便秘와 관련된 형태적 표현은 少陰人, 太陰人에서는 없고, 少陽人에서 大便不通²⁾, 太陽人에서 大便不通³⁾이 있으며, 泄瀉와 관련된 형태적 표현은 少陰人에서 大小便滑利, 下利, 冷泄, 暴泄, 泄瀉⁴⁾ 등이 있고, 少陽人에서 大小便滑利, 下利, 大便澁滑, 滯痢病⁵⁾ 등이 있

- 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第五統」少陽人 運氣病二晝夜 大便不通則 甘遂不可不用
- 3) 上揭書「病變·第五統」太陽之大便不通·雖非歇證 終非危證
- 4) 上揭書「病變·第五統」太陰少陰 大小便滑利則 不吉「病變·第五統」太陰少陰之病 下利後重者 其病進也「病變·第五統」少陰人 頭痛發熱病 病則病也 比之冷泄則輕症也「病變·第五統」少陰人病 間間泄瀉而咳嗽雄壯則 其病非重症也 七分輕也「病變·第五統」少陰人 有暴泄泄瀉過三日則 其病必重
- 5) 上揭書「病變·第五統」太陽少陽 大小便滑利則 吉「病變·第五統」太陽少陽之病·下利後重者 其病退也而太陽人尤速也「病變·第五統」少陽人 大便澁滑者病也 一日間屢次則非惡症也「病變·第五統」少陽人 滯痢病 浮腫有漸則 其病非輕

며, 太陰人에서 大小便滑利, 下利後重⁶⁾ 등이 있으며, 太陽人에서 大小便滑利, 下利後重, 利泄⁷⁾ 등이 있다. 그리고 大便의 色, 雜穢物과 관련된 형태적 표현은 없다.

2) 『甲午本』에 나타난 大便과 관련된 형태적 표현
『甲午本』에서 大便秘와 관련된 형태적 표현은 少陰人에서 大便難, 大便硬, 大便雖革更, 大便秘, 便閉⁸⁾ 등이 있고, 少陽人에서 大便仍閉, 大便秘閉⁹⁾ 등이 있으며, 太陰人에서 大便秘와 관련된 형태적 표현은 없고, 太陽人에서 如羊屎¹⁰⁾가 있다.

泄瀉와 관련된 형태적 표현은 少陰人에서 泄瀉, 下利¹¹⁾ 등이 있고, 少陽人에서 滑泄, 屢泄, 泄瀉, 泄瀉, 滑便, 大便通滑, 大便滑, 滑利, 快泄¹²⁾ 등이 있으며, 太陰人에서 自利, 泄瀉, 痢疾, 自利¹³⁾가 있고, 太陽人에서 泄瀉痢疾¹⁴⁾이 있다.

症也 十分重症也

- 6) 上揭書「病變·第五統」太陰少陰 大小便滑利則 不吉「病變·第五統」太陰少陰之病 下利後重者 其病進也
- 7) 上揭書「病變·第五統」太陽少陽 大小便滑利則 吉「病變·第五統」太陽人病中 胸痛利泄則 其病雖重 終當效也「病變·第五統」太陽少陽之病·下利後重者 其病退也而太陽人尤速也
- 8)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少陰人外感營病論, 大便雖革更 不可攻之 宜用蜜導法通之「少陰人外感營病論」大便硬 發狂者 謂之胃家實「少陰人外感營病論」胃中燥煩大便難而發狂者 其勢然也「少陰人內觸胃病論」大便秘閉者 當用獨參附子理中湯「少陰人內觸胃病論」下利清水一二行 仍爲便閉
- 9) 上揭書「少陰人外感營病論」泄瀉後 大便仍閉者 亦當用柴胡四苓散「少陽人內觸大腸病論」然想必此病人 大便秘閉數三日後 而發此證也·大便秘閉已爲兩夜一晝
- 10) 上揭書「太陽人內觸小腸病論」大便 如羊屎者 難治
- 11) 上揭書 少陰人內觸胃病論 凡少陰人泄瀉 日三度 重於一二度也「少陰人內觸胃病論」太陰病 腹痛下利則當解
- 12) 上揭書 少陽人外感膀胱病論 泄瀉連三四日後 大便仍閉不通者 多成危證「少陽人外感膀胱病論」少陽人病 微腹痛大滑泄 當二三度而止者 其病必快解也「少陽人外感膀胱病論」有一種腹痛隱隱深着屢痛屢泄 或但痛不泄者「少陽人內觸大腸病論」已有腹鳴 泄瀉之驗「少陽人內觸大腸病論」大便通滑 二晝夜者 必用之「少陽人內觸大腸病論」其次 大便滑 一二次 快泄濶多而止者 有病者·其次 一二次 滑便者 有病者 病不加之大便也·其次 或過一晝夜有餘 或一晝夜間 三四五次 小小滑利者 將澁之候也

그리고 大便의 색에 대한 표현은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에서는 없고, 少陰人에서만 下利黃水, 下利靑水, 下利不靑, 下利靑¹⁵⁾ 등이 있으며, 大便의 雜穢物에 대한 표현은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에서는 없고, 少陰人에서만 下利靑穀, 下利靑穀, 雜穢物, 靑穀麥粒¹⁶⁾ 등이 있다.

3) 『辛丑本』에 나타난 大便과 관련된 형태적 표현 『辛丑本』에서 大便秘와 관련된 형태적 표현은 少陰人에서 便秘, 大便秘, 大便秘結, 大便雖硬, 大便燥結, 大便不利¹⁷⁾ 등이 있고, 少陽人에서 大便反秘, 大便秘閉, 大便不通, 便秘, 大便燥, 大便秘, 大便不通, 便秘, 大便秘燥¹⁸⁾ 등이 있으며, 太陰人에서 大便不通, 大便秘¹⁹⁾ 등이 있고, 太陽人

에서 大便秘少, 羊屎²⁰⁾ 등이 있다.

泄瀉와 관련된 형태적 표현은 少陰人에서 泄瀉, 下利, 或時溇²¹⁾ 등이 있고, 少陽人에서 泄瀉, 滑利, 滑泄, 滑便, 泄利, 泄下, 大便滑²²⁾ 등이 있으며, 太陰人에서 泄瀉, 或泄, 自利²³⁾ 등이 있고, 太陽人에서 泄瀉痢疾²⁴⁾이 있다.

그리고 大便의 색에 대한 표현은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에서는 없고, 少陰人에서만 下利靑水, 靑水變爲黑水, 黑水泄瀉, 下利黃水, 大便黑²⁵⁾

- 13) 上揭書 太陰人外感腦佳眞病論, 體熱腹滿自利者 當用桔梗生脈散
「太陰人外感腦佳眞病論」體熱 腹滿 自利之證 外感內觸 表裏俱病
「太陰人內觸胃脘病論」太陰人 一證…則泄瀉五六日大下 而病愈
「太陰人內觸胃脘病論」腹痛 自利 食滯痞滿 痢疾 浮腫 爲裏之表病
- 14) 上揭書 「太陽人內觸小腸病論」太陽人 若有腹痛腸鳴泄瀉痢疾之證 則小腸裡氣 充實也
- 15) 上揭書 「少陰人內觸胃病論」下利不靑者 其證輕 下利靑者 其證重
「少陰人內觸胃病論」下利黃水 則太陰證也 下利靑水 則少陰證也
- 16) 上揭書 「少陰人內觸胃病論」下利靑穀者 雖日數十行也
「少陰人內觸胃病論」若下利黃水 則非靑水 而又必雜穢物也 靑水而雜穢物者 此之靑水
「少陰人內觸胃病論」又十餘行下利 而靑穀麥粒 皆如黃豆大…觀其下利 則靑水中 雜穢物而出
- 17) 『東醫壽世保元』「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許叔微本事方曰 一人 病傷寒 大便秘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大便秘燥 則胃實也…大便雖硬 用藥則易愈也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忽一日 頭痛發熱汗自出 大便秘燥…故 頭痛身熱便秘汗出之熱證…察其證候 則大便燥結 已四五日…大便秘結如前 面色帶靑
- 18) 上揭書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大便 反秘者 此危證也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身熱頭痛 因存者 此便秘之兆也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病人大便秘閉 兩夜一晝 而語韻 不分明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若陽明證 小便不利者 兼大便秘燥 則當用地黃白虎湯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若譫語證 便秘 則不可過一晝夜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少陽人 胃受熱 則大便燥也 少陽人 胃受熱 則大便燥也

- 19) 上揭書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大便不通之證 仍用葛根承氣湯五日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有大便一日不通之證 仍用葛根承氣湯連三日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凡太陰人 大便秘燥 小便覺多而引飲者 不可不早治豫防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大便秘一日 則宜用熱多寒少湯 加大黃一錢
- 20) 上揭書 「太陽人 內觸小腸病論」亦曰 反胃 大便秘少…大便 如羊屎者 難治
- 21) 上揭書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此兒 勞心焦思 素證 有時以泄瀉爲憂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太陽病外證 未除而數下之 遂下利不止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嘗見少陰人十歲兒 思慮耗氣 每有憂愁一二日 則必腹痛泄瀉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下後 下利日數十行 穀不化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大便黑 或時溇 此女勞之病
- 22) 上揭書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泄瀉後 大便 一晝夜間艱辛一次滑利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敗陰內通 則畏寒而泄下也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一次滑泄 表氣 清寧…屢次泄利 表氣潮寒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滑便一次而病快愈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脾受寒 則泄瀉也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其次大便滑一二次快滑泄…其次一二次尋常滑便者…或一晝夜間三四五次小小滑利者
- 23) 上揭書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泄瀉 數十日不止 卽表病之重者也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表寒或泄 蓋咽啞乾燥者 肝熱也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太陰人證 有泄瀉病 表寒證泄瀉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體熱腹滿自利者 熱勝則裏證也
- 24) 上揭書 「太陽人 內觸小腸病論」有噎膈證者 必無腹痛腸鳴泄瀉痢疾之證也
- 25) 上揭書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下利靑水者 欲下之則 當用 巴豆…下利靑水 仍爲便閉者 先用巴豆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下利靑水 連用六貼 靑水不止…靑水 變爲黑水 又二貼 黑水泄瀉 亦愈…此兒十歲冬十二月 有下利靑水病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下利靑水者 腹中 必有靑水也 若 下利黃水 則非靑水而又必雜穢物也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大便黑 或時溇 此女勞之病 非水也

등이 있으며, 大便의 雜穢物에 대한 표현은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에서는 없고, 少陰人에서만 下利清穀, 清水中雜穢物, 非清水而又必雜穢物, 清穀麥粒 皆如黃豆大²⁶⁾ 등이 있다.

4. 體質生理的 大便

1) 『草本卷』에 기술된 體質生理的 大便

少陰人에서 體質生理的 大便으로 기술된 형태적 표현은 없고,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으로 2~3일에 1회 大便을 보는 것은 무방하다²⁷⁾고 하였다. 少陽人에서 體質生理的 大便으로 기술된 형태적 표현으로 滑利하면 吉하다고 하였고²⁸⁾,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으로 大便을 1일에 3회 보는 것은 좋다²⁹⁾고 하였다. 太陰人에서 體質生理的 大便으로 기술된 형태적 표현과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은 없다. 太陽人에서 體質生理的 大便으로 기술된 형태적 표현으로 滑利하면 吉하다고 하였고³⁰⁾,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은 없다.

2) 『甲午本』에 기술된 體質生理的 大便

少陰人과 太陰人에서는 體質生理的 大便에 대한 표현이 없었다. 少陽人에서는 형태적 표현으로 大便의 처음은 燥하고 끝은 滑하며 크기가 크고 잘 소통되는 것이 平常時 無病한 상태의 大便이라 하였고³¹⁾,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은 없다. 太陽人에서는 형태적 표현으로 滑하고, 크기가 크며 양이 많아야 한다고 하였고³²⁾,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은 없다.

3) 『辛丑本』에 기술된 體質生理的 大便

少陰人과 太陰人에서는 體質生理的 大便에 대한 표현이 없었다. 少陽人에서는 형태적 표현으로 大便의 처음은 燥하고 끝은 滑하며 크기가 크고 잘 소통되는 것을 少陽人의 平常時 無病한 상태의 大便이라 하였고³³⁾,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은 없다. 太陽人에서는 『甲午本』의 내용이 그대로 기술되어 형태적 표현으로 滑하고, 크기가 크며 양이 많아야 한다고 하였고³⁴⁾,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은 없다.

5. 體質病理的 大便

1) 『草本卷』에 기술된 體質病理的 大便

少陰人에서는 형태적 표현으로 滑利하면 不吉하고³⁵⁾, 下利後重하면 病證이 진행한다고 하였고³⁶⁾,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으로 泄瀉를 간간히 하고 목소리가 웅장하면 重證은 아니라는 표현이 있으나 구체적인 大便回數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³⁷⁾, 갑작스러운 泄瀉가 3일 이상 경과하면 重證이라 하였³⁸⁾.

少陽人에서는 형태적 표현으로 澀滑하면 病이라 하였고³⁹⁾,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으로 少陽人의 久泄은 輕證이라 하였으나, 구체적인 回數에 대한 언급은 없다⁴⁰⁾.

太陰人에서는 형태적 표현으로 滑利하면 不吉

滑也 二則宜體大而多也

26) 上揭書「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太陰證 下利清穀 若發汗則必脹滿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太陰證下利清穀者 當用藿香正氣散...少陰證下利清穀者 當用官桂付子理中湯」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清水中 雜穢物而出...清穀麥粒 皆如黃豆大...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下利黃水 則非清水而又必雜穢物也
27) 前揭書「病變·第五統」少陰大便二三日一次無妨
28) 上揭書「病變·第五統」太陽少陽 大小便滑利則 吉
29) 上揭書「病變·第五統」少陽大便一日數三次益好
30) 上揭書「病變·第五統」太陽少陽 大小便滑利則 吉
31) 前揭書「少陽人內觸大腸病論」少陽人大便頭燥尾滑體大而疏通者 平時無病者之大便也
32) 上揭書「太陽人內觸小腸病論」太陽人大便 一則宜

滑也 二則宜體大而多也
33) 前揭書「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 少陽人表裏病結解 必觀於大便 而少陽人大便頭燥尾滑體大而疏通者 平時無病者之大便也
34) 前揭書「太陽人內觸小腸病論」太陽人大便 一則宜滑也 二則宜體大而多也
35) 前揭書「病變·第五統」太陰少陰 大小便滑利則 不吉
36) 上揭書「病變·第五統」太陰少陰之病 下利後重者 其病進也 而少陰人尤甚也
37) 上揭書「病變·第五統」少陰人病 間間泄瀉而咳靜雄壯則 其病非重症也 七分輕也
38) 上揭書「病變·第五統」少陰人 有暴泄泄瀉過三日則其病必重
39) 上揭書「病變·第五統」少陽人 大便澀滑者病也 一日間屢次則 非惡症也
40) 上揭書「病變·第五統」少陽人 有久泄泄瀉雖月餘 其病輕也

하고⁴¹⁾, 下利後重하면 病證이 진행한다고 하였고⁴²⁾,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은 없다.

太陽人에서는 형태적 표현으로 大便不通은 危證이 아니고⁴³⁾, 滑利하면 吉하고⁴⁴⁾, 利泄하는 것은 重證이지만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⁴⁵⁾,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은 없다.

2) 『甲午本』에 기술된 體質病理的 大便

少陰人에서는 泄瀉를 太陰病泄瀉와 少陰病泄瀉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같은 泄瀉라도 동반되는 증상과 함께 다르게 辨證하려고 하였다. 또한 泄瀉의 色을 가지고서도 病證을 구분하는 시각을 볼 수 있다⁴⁶⁾.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으로 泄瀉의 回數가 많을수록 病證이 重해진다고 하였고, 大便의 回數가 많은 것을 경계하였다⁴⁷⁾.

少陽人에서는 크게 滑한 泄瀉가 2~3회 나오고 그치거나⁴⁸⁾, 滑한 大便이 1~2회 나오고 그치며 病證이 풀리는 경우⁴⁹⁾와 泄瀉 3~4일 이후 便閉의 증상이 나타나며 危證이 되는 경우⁵⁰⁾와 같이 형태적 표현과 함께 大便回數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胸膈熱證에 나타나는 胸煩悶燥는 그 증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大便幾日에서 胸煩悶燥를 살펴야 한다고 하였으며⁵¹⁾, 大便秘

의 寒熱多少를 大便幾日로 구분하고⁵²⁾, 用藥의 기준을 大便幾日로 표현하였다⁵³⁾.

太陰人에서는 형태적 표현과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은 없고, 太陽人에서 體質病理的 大便으로 기술된 형태적 표현으로 大便不通은 危證이 아니고⁵⁴⁾, 大便의 모양이 羊屎의 경우는 難治라 하였으며⁵⁵⁾,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은 없다.

3) 『辛丑本』에 기술된 體質病理的 大便

少陰人에서 體質病理的 大便으로 기술된 형태적 표현으로 自汗不出하며 大便硬한 것은 쉽게 치료한다고 하였고⁵⁶⁾, 大便秘燥가 汗出과 함께 나타나 亡陽證으로 진행한 치험례⁵⁷⁾를 제시하였으며, 泄瀉의 色과 雜穢物에 대한 표현이 있다 (Table 3).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으로 少陰人 泄瀉는 횟수가 많을수록, 기간이 길수

41) 上揭書「病變·第五統」太陰少陰 大小便滑利則 不吉
 42) 上揭書「病變·第五統」太陰少陰之病 下利後重者 其病進也 而少陰人尤甚也
 43) 上揭書「病變·第五統」太陽之大便不通…雖非歇證 終非危證
 44) 上揭書「病變·第五統」太陽少陽 大小便滑利則 吉
 45) 上揭書「病變·第五統」太陽人病中 胸痛利泄則 其病雖重 終當效也
 46) 前揭書「少陰人內觸胃病論」下利黃水 則太陰證也 下利青水 則少陰證也 「少陰人內觸胃病論」下利不青者 其證輕 下利青者 其證重
 47) 上揭書「少陰人內觸胃病論」凡少陰人泄瀉 日三度 重於一二度也 「少陰人內觸胃病論」或大便三度 則不可謂輕病兆也
 48) 上揭書「少陽人外感膀胱病論」少陽人病 微腹痛大 滑泄 當二·三度而止者 其病必快解也
 49) 上揭書「少陽人內觸大腸病論」其次 大便滑 一·二次 快泄潤多而止者 有病者 病快解之大便也
 50) 上揭書「少陽人外感膀胱病論」少陽人病 泄瀉連三 四日後 大便仍閉不通者 多成危證
 51) 上揭書「少陽人內觸大腸病論」胸膈熱證 受病之初 雖有胸煩悶燥之驗 而其機不甚顯 則不可執一而點證

也…凡少陽人病 大便過一晝夜有餘者 胸煩悶燥之初 證也
 52) 上揭書「少陽人內觸大腸病論」寒多熱少之病 大便至三晝夜 而不通 則危畏也 熱多寒少之病 大便過二晝夜 而不通 則危畏也 但熱無寒之病 大便未及兩晝一夜 而危畏也 譎語之病 大便纔過一晝夜 而危畏也
 53) 上揭書「少陽人外感膀胱病論」寒熱往來 胸膈滿 而大便不過一晝夜有餘者 當用千金導赤散 柴胡芫蕪湯 大便過一晝夜有餘者 當用柴胡芫蕪湯 加石膏一錢 至於二晝夜 則當用白虎湯 「少陽人外感膀胱病論」泄瀉後 大便仍閉者 亦當用柴胡四苓散 八味苦麥湯加石膏 「少陽人內觸大腸病論」大便過一晝夜一·二辰刻者 必用白虎湯 無至兩晝一夜之危險 「少陽人內觸大腸病論」大便過一晝一夜有餘者 裏熱已結也 二晝夜者熱重也 三晝夜者危險也 用白虎湯 三四服 則胃中清潤 而大便通滑 二晝夜者 必用之 無至三晝夜之危險 「少陽人內觸大腸病論」膀胱病 惡寒證 大便過三晝夜有餘 而危險者 用藥 則十之八九 必有生者也 大腸病 譎語證 大便秘閉者 二晝夜前 命已傾矣 兩晝一夜 兩晝一晝 則十之八九 無及矣 宜用豫防 錦上添花白虎湯 渡海白虎湯
 54) 上揭書「四象人辨證論」太陽人 有八九日大便不通 證 其病 非殆證也
 55) 上揭書「太陽人內觸小腸病論」大便 如羊屎者 難治
 56) 前揭書「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蓋少陰人病候 自汗不出 則脾不弱也 大便秘燥 則胃實也 少陰人太陽陽明病 自汗不出脾不弱者 輕病也 大便 雖硬 用藥則易愈也
 57) 上揭書「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嘗治少陰人十一歲兒汗多亡陽病 此兒 勞心焦思 素證 有時以泄瀉爲憂 而每飯時汗流滿面矣 忽一日 頭痛發熱汗自出 大便秘燥…其證 可惡 始覺汗多亡陽證候

록 重證이며,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 달에 설사를 두 세 번 하거나 乾便이라도 하루에 서너 번 본다면 가벼운 환자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⁵⁸⁾.

少陽人에서는 형태적 표현으로 少陽人의 泄瀉 이후 나타나는 便秘之兆를 기술하였고⁵⁹⁾,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으로 病證의 輕重에 대한 파악⁶⁰⁾과 用藥의 기준을 大便幾日로 제시하였다⁶¹⁾. 특히 少陽人 泄瀉에 病逾之泄과 亡陰之泄의 구분에 있어서 泄瀉의 回數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언급되어 있다⁶²⁾.

太陰人에서는 형태적 표현으로 大便燥澁하면

大黃을 加하고 滑泄太多하면 大黃을 去하는 등의 用藥의 기준을 大便의 硬度에 따라 설명하였고⁶³⁾,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으로 溫病에서의 大便不通⁶⁴⁾, 泄瀉不止⁶⁵⁾, 久泄久痢⁶⁶⁾ 등이 있다.

太陽人에서는 형태적 표현으로 太陽人 大便秘의 경우, 反胃證의 羊屎는 難治라 하였고⁶⁷⁾,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으로 8~9日 大便不通은 殆證이 아니라고 하였다⁶⁸⁾.

Ⅲ. 考 察

少陰人에서 나타나는 大便과 관련된 표현으로 『草本卷』에서는 2~3일에 1회 大便을 보는 것은 무방하고, 少陰人의 大便이 泄瀉하는 경우와 泄瀉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重證으로 파악하고, 갑작스러운 泄瀉가 3日 이상 경과하면 重證이라 하였다. 『甲午本』에서는 少陰人 泄瀉를 太陰病 泄瀉와 少陰病 泄瀉로 구분하고, 이를 泄瀉의 色에 따라 나누어 보고자 하였고, 泄瀉의 回數가 많을수록 病證이 重하고, 大便의 回數가 많은 것을 경계하였다. 『辛丑本』에서는 自汗不出하며 大便硬한 것은 쉽게 치료하지만, 汗出과 함께 나타나는 大便秘燥는 亡陽證으로 동일한 大便秘를 구분하여 보려는 시각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少陰人 泄瀉는 횡수가 많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重證이며,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 달에 설사를 두 세 번 하거나 乾便이라도 하루에 서너 번 보는 것은 가법지 않다고 하였다.

- 58) 上揭書「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凡少陰人泄瀉 日三度 重於一二度也 四五度 重於二三度也 而日四度泄瀉 則太重也 泄瀉一日 輕於二日也 二日 輕於三四日也 而連三日 泄瀉 則太重也 少陰人平人 一月間 或泄瀉二三次 則不可謂輕病人也 一日間 乾便三四度 則不可謂輕病人也
- 59) 上揭書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泄瀉後 大便 一晝夜間艱辛一次滑利 或三四五次小小滑利 身熱頭痛 因存者 此便秘之兆也
- 60) 上揭書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身熱頭痛 不愈 大便 反秘者 此危證也 距諺語不遠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少陽人表裏病 結解 必觀於大便…其次大便滑一二次快滑泄 廣多而止者 有病者之病快解之大便也 其次一二次尋常滑便者 有病者病勢不加之大便也 其次或過一晝夜有餘不通 或一晝夜間三四五次小小滑利者 將澁之候也 非好便也 宜預防
- 61) 上揭書「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少陽人 身寒腹痛泄瀉 一晝夜間三四五次者 當用滑石苦參湯 身寒腹痛 二三晝夜間無泄瀉 或艱辛一次泄瀉者 當用滑石苦參湯 或用熟地黃苦參湯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病人大便秘閉 兩夜一晝 而語顛 不分明 牙關 緊急 水飲不入 急煎石膏二兩 艱辛下咽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其後 每日 荊防地黃湯 加石膏一錢 日二貼用之 大便 過一日則加四錢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大便 不過一晝夜而通者 當用荊防瀉白散 大便過一晝夜而不通者 當用地黃白虎湯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少陽人裡熱病 地黃白虎湯爲聖藥 而用之者 必觀於大便之通不通也 大便一晝夜不通 則胃熱已結也 二晝夜不通 則熱重也 三晝夜不通 則危險也 一晝夜八九辰刻 二晝夜 恰好用之 無至三晝夜之危險 若諺語證 便秘 則不可過一晝夜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少陽人 大便不通病 用白虎湯三四服 當日大便不通者 將爲融會貫通 大吉之兆也 不必疑惑而翌日 又服二三貼 則必無不通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裡病 有大便過一晝夜不通證 則用白虎湯
- 62) 上揭書「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少陽人病 一日滑利 陰氣下降 手足掌心 先汗 則病必愈也 而二日三日泄不止病不愈 則陰不下降而亡陰 無疑也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少陽人 病愈之泄 手足掌心 先汗 而一次滑泄 表氣 清寧 而精神 爽明 亡陰之泄 手足掌心 不汗 屢次泄利 表氣 潮寒 而精神 鬱冒

- 63) 上揭書「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疫氣大減 病解後 復用熱多寒少湯 大便燥澁則加大黃一錢 滑泄太多則去大黃
- 64) 上揭書「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一太陰人十歲兒 得裡熱瘧病 粥食全不入口 藥亦不入口 壯熱穢穢 有時飲冷水 至于十一日 則大便不通 已四日矣
- 65) 上揭書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 胃脘寒證瘧病… 泄瀉 數十日不止 卽表病之重者也
- 66) 上揭書 太陰人 泛論, 太陰人 勞心焦思 屢謀不成者 或有久泄久痢
- 67) 上揭書「太陽人 內觸小腸病論, 亦曰 反胃 大便 秘少 若羊屎然…大便 如羊屎者 難治
- 68) 上揭書「四象人 辨證論, 太陽人 有八九日大便不通證 其病 非殆證也 不必疑惑而亦不可無藥 當用獼猴藤五加皮湯

따라서 少陰人의 경우, 형태적으로 大便秘하는 경우와 하루에 한 번 大便을 보지 않는 경우 일지라도 少陰人의 體質生理的 大便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고, 泄瀉의 回數나 幾日이 늘어나는 것을 重證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少陽人에서 나타나는 大便과 관련된 표현으로 『草本卷』에서는 體質生理的 大便으로 滑利하면 吉하고, 澁滑하면 病이며, 少陽人에서 1일에 3번 大便을 보는 것은 좋으며, 久泄은 輕證이라고 하였다. 『甲午本』에서는 胸膈熱證에 나타나는 胸煩悶燥는 大便幾日에서 살펴야 하고, 大便秘의 寒熱多少를 大便幾日로 구분하고, 用藥의 기준을 大便幾日로 표현하는 등 大便幾日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泄瀉의 경우는 泄瀉 수차례 이후 病證이 풀리는 경우와 泄瀉 3~4日 이후 便秘의 증상이 나타나며 危證이 되는 경우가 함께 나타나 있다. 『辛丑本』에서는 少陽人의 泄瀉 이후 나타나는 便秘之兆와 大便回數, 또는 幾日과 관련된 표현으로 病證의 輕重에 대한 과약과 用藥의 기준을 大便幾日로 제시하였고 少陽人 泄瀉에서 亡陰證을 기술하고, 病逾之泄과 亡陰之泄의 차이를 泄瀉의 回數로 제시하였다.

또한 平常時 無病한 상태의 大便으로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大便의 처음은 燥하고 끝은 滑하며 크기가 크고 잘 소통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少陽人의 경우, 大便幾日을 중요하게 보았고, 『草本卷』에서는 형태적으로 泄瀉하는 경우와 하루에 여러 번 大便을 보는 경우일지라도 少陽人의 體質生理的 大便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甲午本』에서는 泄瀉 이후 病證이 풀리는 경우와 泄瀉 이후 危證이 되는 경우를 기술하였고, 『辛丑本』에서는 亡陰證의 病理를 인식하며 泄瀉를 病逾之泄과 亡陰之泄로 구분하여 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太陰人에서 나타나는 大便과 관련된 표현으로 『草本卷』에서는 泄瀉하면 不吉하고, 病證이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少陰人과 함께 표현한 것

으로 太陰人만의 독자적인 표현은 없고, 『甲午本』에서는 大便秘에 대한 표현은 없고, 泄瀉에 대한 표현만 있으며, 『辛丑本』에서는 溫病에서 大便의 硬度를 用藥의 기준으로 설명하고, 溫病에서의 大便不通, 泄瀉不止, 久泄久痢 등의 표현이 나타나지만 病理的 설명은 없다.

따라서 太陰人의 경우, 『草本卷』에서는 太陰人 독자적인 표현은 없고, 『甲午本』에서는 大便과 관련된 독자적인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辛丑本』에서는 用藥의 기준으로 제시하여 板本別로 인식이 점차 확립되나, 少陰人과 少陽人에 비하여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太陽人에서 나타나는 大便과 관련된 표현으로 『草本卷』에서는 滑利하면 吉하고, 大便不通은 危證이 아니며, 利泄하는 것은 重證이지만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甲午本』에서는 大便不通은 危證이 아니고, 太陽人의 大便은 滑하고, 크기가 크며 양이 많아야 하며, 大便이 羊屎하면 難

Bristol Stool Chart








Type 1		Separate hard lumps, like nuts (hard to pass)
Type 2		Sausage-shaped but lumpy
Type 3		Like a sausage but with cracks on its surface
Type 4		Like a sausage or snake, smooth and soft
Type 5		Soft blobs with clear-cut edges (passed easily)
Type 6		Fluffy pieces with ragged edges, a mushy stool
Type 7		Watery, no solid pieces. Entirely Liquid

Fig 1. Bristol Stool Scale

치이며, 『辛丑本』에서는 太陽人의 大便是 滑하고, 크기가 크며 양이 많아야 하고, 羊屎는 難治이며, 8~9日 大便不通은 殆證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太陽人의 경우, 大便秘가 滑한 것을 生理的 大便秘의 범주로 해석하고 있고, 大便秘가 羊屎의 형태를 難治라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Bristol Stool Scale⁶⁹⁾을 참조하여 생각해 본다면 딱딱하게 굳어져 나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어 大便秘의 범주에 있는 大便秘의 양상을 병리적 형태의 大便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1).

IV. 結 論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 나타난 大便秘와 관련된 표현을 형태적 표현과 大便回數, 또는 幾日에 대한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體質生理的 大便秘와 體質病理的 大便秘의 範疇에서 板本別로 비교,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少陰人에서는 大便秘에 비해 泄瀉를 重險證으로 인식하였고, 2~3일 大便秘를 보지 않는 것보다 하루에 수차례 보는 것을 體質病理的 大便秘의 범주로 인식하고 있다.
2. 少陽人에서는 泄瀉에 비해 大便秘를 重險證으로 인식하였고, 泄瀉에 있어 『草本卷』에서는 體質生理的 大便秘의 범주로 인식하였다가 體質病理的 大便秘가 확립되어가면서 亡陰證의 중요한 진단 기준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3. 太陰人에서는 大便秘의 표현이 病證과 관련하여 『辛丑本』에서 用藥의 기준으로까지 인식이 점차 확립되나, 少陰人과 少陽人에 비하여 체계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 太陽人에서는 大便秘가 滑한 것을 體質生理的

大便秘의 범주로 보아 太陽人 大便秘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있었으나 大便秘와 관련된 표현이 病證輕重에 대한 설명 위주로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등의 타 체질에 비하여 확립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V. 參考文獻

1. 윤승미. 素證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醫院 석사학위논문. 2003.
2. 이상인. 변비의 치료. 대한소화기학회 학술회의. 2002;37-45.
3. 송인성. 만성 설사. 대한소화기학회 학술회의. 2002;46-55.
4. 이정찬, 김달래. 大便秘를 中心으로 한 四象體質 病證에 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2;4(1):171-177.
5. 김선민, 송일병.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과 『東武遺稿』에서의 素證에 關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67-77.
6. 최재영,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대변의 특징에 대한 임상적 검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2):58-68.
7. 김정주, 이영섭, 박성식. 太陽少陽人과 太陰少陰人의 睡眠, 大便秘, 小便에 關한 臨床적 高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3):82-90.
8. 박효진, 이영섭, 박성식. 少陽少陰人과 太陽太陰人의 汗, 大便秘, 小便, 消化에 關한 臨床적 比較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6;18(1):107-117.
9. 이경애, 박성식, 이원철. 四象醫學의 汗·大便秘·小便에 對한 考察.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996;17(1):123-138.
10. 李濟馬原著, 朴性植譯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집문당, 서울, 2005.
11. 四象體質醫學會.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2001.
12.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改正增補 四象醫學. 집문당, 서울, 2005.

69) 著者註 The Bristol Stool Scale, 또는 Bristol Stool Chart는 醫學적으로 大便秘를 分類하기 爲 大便秘를 7단계로 分類하는 分類法으로 Bristol大學의 Heaton과 Lewis에 의해 고안되었고, 1997년 스칸디나비아의 Gastroenterology 社에 처음 소개되었다.